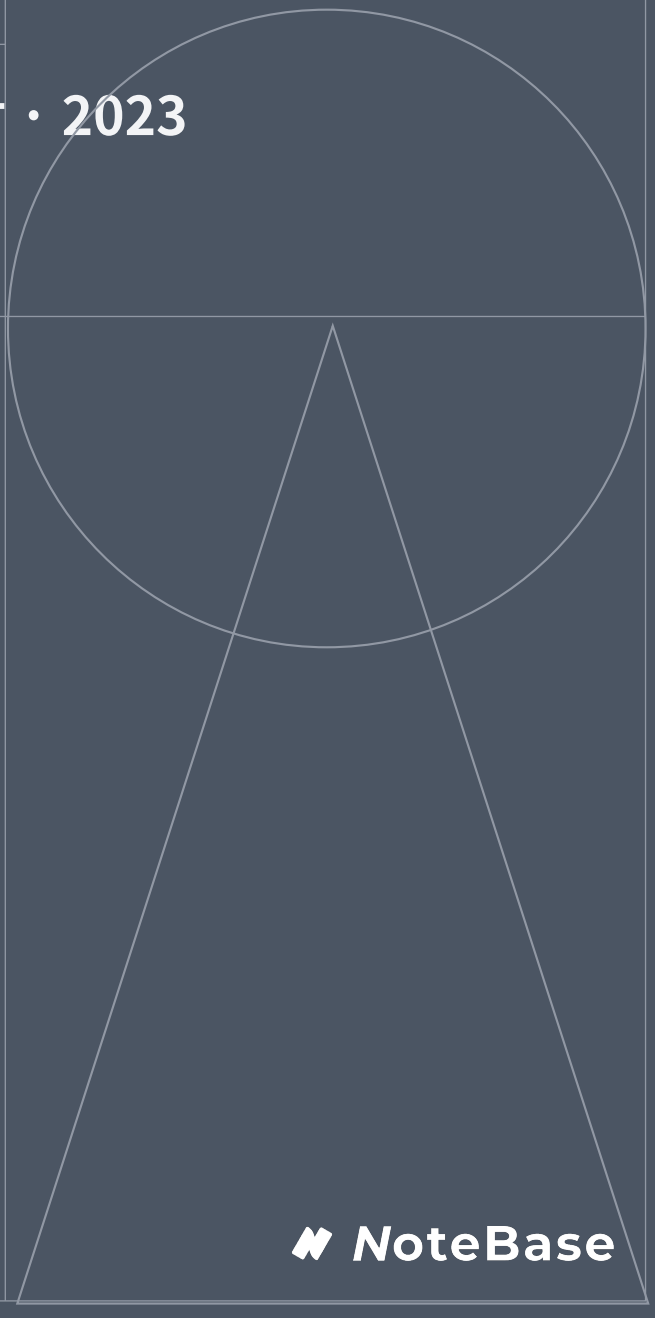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3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3

문 1. (주)서울은 20X1년 12월 31일 <보기>와 같은 결산수정사항을 확인하였다. <보기>의 모든 결산수정사항 반영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이자와 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

<보기>

• 20X1년 8월 1일 (주)대한에게 ₩600,000을 차입하였고, 1년 후 원금과 이자 연 10%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X1년 4월 1일 향후 3년치 창고 임대료를 ₩480,000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기초 소모품은 ₩30,000, 당기 구입이 ₩70,000이었으며, 기말 소모품 가액은 ₩40,000으로 파악되었다.

① ₩25,000 감소

② ₩65,000 감소

③ ₩35,000 증가

④ ₩85,000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결산수정사항의 수익·비용 인식액을 계산하여 당기순이익의 순증감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차입금 600,000원, 연이자율 10%, 차입일 20X1년 8월 1일
- 선수임대료 480,000원, 3년분, 수령일 20X1년 4월 1일
- 기초 소모품 30,000원, 당기 구입 70,000원, 기말 소모품 40,000원

구해야 할 값:
- 모든 결산수정사항 반영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

주의할 조건:
- 이자와 임대료는 월할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이자비용은 원금 × 이자율 × 경과개월수/12로 계산한다.
임대수익은 선수임대료 × 경과개월수/전체개월수로 계산한다.
소모품비는 기초소모품 + 당기구입액 - 기말소모품으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 문항이 기간경과에 따른 비용·수익 인식과 실사에 따른 소모품 사용액 계산을 함께 묻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차입금 이자비용은 $600,000 \times 10\% \times \frac{5}{12} = 25,000$이다.
2. 선수임대료 중 당기 수익은 $480,000 \times \frac{9}{36} = 120,000$이다.
3. 당기 소모품비는 $30,000 + 70,000 - 40,000 = 60,000$이다.
4. 당기순이익 순영향은 $-25,000 + 120,000 - 60,000 = 35,000$이므로 35,000원 증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25,000 감소"는 차입금 이자비용 25,000원만 반영한 값이다. 선수임대료의 당기 수익 120,000원과 소모품비 60,000원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35,000원 증가이다.
② X: "65,000 감소"는 비용만 합산하거나 수익 인식을 누락한 값에 가깝다. 선수임대료는 9개월분이 당기수익으로 대체되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35,000원 증가이다.
③ O: "35,000 증가"는 이자비용 25,000원 감소효과, 임대수익 120,000원 증가효과, 소모품비 60,000원 감소효과를 모두 반영한 순액이다.
④ X: "85,000 증가"는 소모품비를 10,000원으로 잘못 계산하는 등 결산수정액을 오산한 결과이다. 소모품비는 기초 30,000원과 당기 구입 70,000원에서 기말 40,000원을 차감한 60,0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35,000원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선수수익의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대체하는 조정을 빼먹거나, 소모품비를 기말 잔액 40,000원으로 착각하는 경우 오답이 나온다. 특히 ①은 이자만 반영한 값이고 ④는 소모품 사용액을 잘못 잡을 때 나오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결산수정 문제는 각 항목을 수익 증가, 비용 증가, 자산 감소 중 무엇으로 바뀌는지 먼저 분류한 뒤, 기간 안분액과 사용액을 각각 계산하여 마지막에 순이익 영향만 합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결산수정의 순이익 영향은 기간경과 수익은 더하고, 미지급비용과 사용액 비용은 뺀다.

NoteBase

문 2.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재고자산은 기초에서 기말까지 ₩500 감소했다.
• 당기 매입은 ₩230이고, 매입에누리가 ₩30이다.
• 매출은 ₩1,000이다.

① ₩200
② ₩300
③ ₩500
④ ₩7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순매입액과 재고자산 증감으로 매출원가를 구한 뒤 매출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재고자산은 기초에서 기말까지 500 감소, 당기 매입은 230, 매입에누리는 30, 매출은 1,000이다.
구해야 할 값: 매출총이익이다.
주의할 조건: 매입에누리는 매입에서 차감하고, 재고자산 감소 500은 매출원가를 그만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사용할 공식

매출총이익 = 매출 - 매출원가
매출원가 = 순매입액 + (기초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재고자산이 기초보다 기말에 500 적으므로 당기에 판매에 사용된 재고가 500만큼 추가로 있었고, 따라서 순매입액에 재고 감소분을 더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순매입액은 230 - 30 = 200이다.
2. 재고자산이 500 감소했으므로 기초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 = 500이다.
3. 매출원가는 200 + 500 = 700이다.
4. 매출총이익은 1,000 - 700 = 3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200은 순매입액만 계산한 값이다. 재고자산 감소 500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매출총이익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매출총이익은 300이다.
② O: 순매입액 200에 재고 감소 500을 더하면 매출원가가 700이 되고, 매출 1,000에서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은 300이 된다.
③ X: 500은 매출 1,000에서 재고 감소 500만 뺀 식이나 다른 일부 조건만 반영한 값에 가깝다. 매입에누리를 반영한 순매입액 200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300이다.
④ X: 700은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매출원가이다. 올바르게는 매출원가는 700, 매출총이익은 300이다.

오답 포인트

재고자산 감소 500을 매출총이익 증가분으로 착각하거나, 700의 매출원가를 그대로 정답으로 고르면 틀린다. 이 문제는 순매입액과 재고 감소분을 먼저 합쳐 매출원가를 만든 뒤 매출과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가 증감하는 계산형 문제는 순매입액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차이로 매출원가를 보정한 뒤 마지막에 매출에서 차감해 매출총이익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 감소는 매출원가 가산, 매출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차감이다.

NoteBase

문 3. (주)서울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보기>와 같을 때, 20X1년 매출원가로 가장 옳은 것은? (단, 평가손실과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보기>
• 기초 재고: 80개 단가 ₩300
• 매입: 300개 단가 ₩350
• 매출: 310개 단가 ₩700
• 기말 재고: 실사수량 60개, 개당 순실현가치 ₩280
• 재고자산감모 중 10%는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감모

① ₩104,500
② ₩108,000
③ ₩111,850
④ ₩112,2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에서 매출원가를 구할 때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포함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제외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고 80개 단가 300원, 매입 300개 단가 350원, 매출 310개, 기말 실사수량 60개, 개당 순실현가능가치 28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감모 10개 중 10%는 비정상감모이므로 1개는 기타비용, 9개는 매출원가이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 = 선입선출로 계산한 판매분 원가 + 정상감모손실 + 평가손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문제에서 평가손실과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주어졌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판매가능 재고원가는 80×300 + 300×350 = 129,000원이다.
2. 선입선출법으로 매출 310개의 원가는 80×300 + 230×350 = 104,500원이다.
3. 장부상 남은 재고는 70개 × 350원 = 24,500원이고, 실사수량은 60개이므로 감모는 10개이다.
4. 감모원가 10개 × 350원 = 3,500원 중 10%인 350원은 비정상감모로 기타비용이고, 90%인 3,150원은 정상감모로 매출원가이다.
5. 기말재고 60개의 원가는 21,000원이고 순실현가능가치는 16,800원이므로 평가손실은 4,200원이다.
6. 따라서 매출원가는 104,500 + 3,150 + 4,200 = 111,85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04,500원은 판매된 310개에 대한 선입선출 원가만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매출원가가 104,5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정상감모 3,150원과 평가손실 4,200원을 더한 111,850원이 매출원가이다.
② X: 108,000원은 감모 3,500원을 전부 매출원가에 넣고 평가손실 4,200원을 누락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감모 전액이 매출원가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비정상감모 350원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감모 3,150원만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③ O: 선입선출 매출원가 104,500원에 정상감모 3,150원과 평가손실 4,200원을 더하면 111,850원이다. 문제의 처리조건을 모두 반영한 값이므로 옳다.
④ X: 112,250원은 정답 111,850원보다 400원 큰 값으로,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의 구분 또는 평가손실 계산을 잘못 반영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매출원가가 112,25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비정상감모를 제외하고 순실현가능가치까지 반영한 111,850원이 매출원가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감모손실 10개 전부를 매출원가에 넣기 쉽고, 기말재고 60개에 대한 저가평가손실까지 빠뜨리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정상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이라는 문장을 놓치면 ②처럼 계산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 계산형 문항은 먼저 판매분 원가를 계산한 뒤 장부수량과 실사수량을 비교해 감모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고, 마지막에 기말재고의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여부를 반영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 재고문제는 판매분 원가 계산 후 감모의 정상·비정상을 가르고, 기말재고는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NoteBase

문 4. (주)서울은 20X1년 초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8,5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양도회사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보기>와 같다. 일괄구입 시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과 취득세 ₩1,000,000이 소요되었다면, 토지의 취득원가는?

〈보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토 지	₩12,000,000	₩17,000,000
건 물	₩10,500,000	₩10,200,000
기계장치	₩7,500,000	₩6,800,000

① ₩11,400,000

② ₩12,000,000

③ ₩14,250,000

④ ₩15,0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괄구입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 공통 부대비용까지 같은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일괄매입대금 28,5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원, 취득세 1,000,000원이다.
공정가치: 토지 17,000,000원, 건물 10,200,000원, 기계장치 6,8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토지의 최종 취득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일괄구입에서는 양도회사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며, 개별 자산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공통 부대비용도 같은 비율로 안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토지 배분비율 = 토지 공정가치 / 전체 공정가치이다.
토지 취득원가 = 일괄매입대금 × 토지 배분비율 + 공통 부대비용 × 토지 배분비율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한꺼번에 취득했으므로 각 자산의 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전체 공정가치 = 17,000,000 + 10,200,000 + 6,800,000 = 34,000,000원이다.
토지 배분비율 = 17, 000, 000/34, 000, 000 = 0.5이다.
토지에 배분되는 일괄매입대금 = 28,500,000 × 0.5 = 14,250,000원이다.
공통 부대비용 = 500,000 + 1,000,000 = 1,500,000원이다.
토지에 배분되는 부대비용 = 1,500,000 × 0.5 = 750,000원이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 = 14,250,000 + 750,000 = 15,00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11,400,000원은 양도회사의 장부금액 비율 12, 000, 000/30, 000, 000을 일괄매입대금 28,500,000원에 곱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장부금액 기준으로 배분했다는 점이고, 올바르게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배분한 뒤 부대비용도 반영해야 하므로 15,000,000원이다.
② X: 12,000,000원은 총원가 30,000,000원에 장부금액 비율 12, 000, 000/30, 000, 000을 적용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장부금액 기준으로 총원가를 나눈 점이고, 올바르게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총원가를 배분해야 하므로 15,000,000원이다.
③ X: 14,250,000원은 일괄매입대금 28,500,000원만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취득세라는 공통 부대비용 1,500,000원을 누락한 점이고, 올바르게는 이 부대비용 중 토지 몫 750,000원까지 더해 15,000,000원이다.
④ O: 토지 공정가치 비율은 0.5이므로 일괄매입대금 14,250,000원과 공통 부대비용 배분액 750,000원을 합한 15,000,000원이 토지 취득원가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양도회사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함께 제시해 장부금액으로 안분하게 만드는 점과, 부동산중개수수료·취득세를 토지 원가에서 누락하게 만드는 점이다. 일괄구입에서는 공정가치 비율이 기준이고, 공통 부대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배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괄구입 계산형 문제는 먼저 전체 공정가치를 합산해 배분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을 매입대금과 공통 부대비용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뒤 최종 원가를 합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일괄구입은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 공통 부대비용도 같은 비율로 더한다.

NoteBase

문 5. (주)서울은 장부금액이 ₩570,000,000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를 원가모형으로 측정한다. 20X1년 말에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의 회수가능액이 ₩500,000,000으로 평가되었다. 20X3년 말에는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여 해당 토지의 회수가능액이 ₩580,000,000으로 회복되었다면, (주)서울의 20X3년 말 토지손상차손환입은?

① ₩20,000,000

② ₩50,000,000

③ ₩70,000,000

④ ₩80,000,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는 토지의 손상차손환입액을 계산할 때, 환입 후 장부금액이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최초 장부금액 570,000,000원, 20X1년 말 회수가능액 500,000,000원, 20X3년 말 회수가능액 580,000,000원이다.
- 구해야 할 값: 20X3년 말 토지손상차손환입액이다.
- 주의할 조건: 토지는 원가모형 대상이지만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환입 상한은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 570,00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손상차손환입액 = (회수가능액,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 - 현재 장부금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더라도 환입 후 장부금액이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0X1년 말 손상차손은 570,000,000원 - 500,000,000원 = 70,000,000원이다.
2. 따라서 손상 인식 후 장부금액은 500,000,000원이다.
3. 20X3년 말 회수가능액은 580,000,000원이지만, 환입 후 장부금액의 상한은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 570,000,000원이다.
4.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액은 570,000,000원 - 500,000,000원 = 70,0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손상차손환입액은 20,000,000원이 아니다. 20X3년 말 현재 장부금액 500,000,000원을 환입 상한 570,000,000원까지 올릴 수 있으므로 환입 가능액은 70,00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70,000,000원이다.
② X: 손상차손환입액은 50,000,000원이 아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이 그대로 570,000,000원이며, 현재 장부금액 500,000,000원과의 차이는 70,00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70,000,000원이다.
③ O: 20X1년 말 손상차손 70,000,000원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이 500,000,000원이 된다. 20X3년 말 회수가능액이 580,000,000원으로 회복되더라도 환입 후 장부금액은 570,000,000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환입액은 70,000,000원이다.
④ X: 80,000,000원은 회수가능액 580,000,000원과 현재 장부금액 500,000,000원의 차이만 본 값이다. 손상차손환입은 원래 장부금액 57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00,000원은 환입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70,0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회수가능액이 580,000,000원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80,000,000원을 그대로 환입하는 실수가 가장 흔하다.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과 현재 장부금액의 단순 차이가 아니라,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을 상한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차손환입 문제는 현재 장부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환입 후 장부금액의 상한이 손상 인식이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회수가능액과 상한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입액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토지 손상차손환입은 회수가능액까지가 아니라 손상 없었더라면의 장부금액까지만 가능하다.

NoteBase

문 6.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서울은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1년 말 현재 은행에서 보내온 당좌예금잔액증명서의 잔액은 ₩14,000이다. (주)서울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 차이의 원인은 <보기>와 같다. (주)서울의 20X1년 말 수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계정잔액은?

<보기>
• 은행은 (주)대한이 발행한 수표 ₩60,000을 (주)서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감하였다.
• 은행은 (주)서울의 받을어음을 추심하여 ₩20,000을 입금하였으나 (주)서울은 모르고 있었다.
• 매출채권 중 ₩78,000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주)서울은 이를 ₩87,000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 (주)서울이 발행한 수표 중 ₩21,000의 수표가 12월 말까지 은행에 제시되지 않았다.
• (주)서울이 매입채무 결제를 위해 수표 ₩69,000을 발행하면서 장부에는 ₩66,000으로 기록하였다.
• (주)서울이 12월 31일에 ₩45,000을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은행은 20X2년 1월 2일에 입금처리하였다.

① ₩72,000
② ₩84,000
③ ₩90,000
④ ₩98,0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은행계정조정표에서 은행측 조정으로 조정후 현금잔액을 먼저 구한 다음, 장부수정사항의 순효과를 역산하여 수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은행 잔액증명서 잔액 14,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말 수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이다.
주의할 조건: 미제시수표와 미입금현금은 은행측 미조정항목이고, 받을어음 추심과 기록오류는 장부수정항목이다. 타사 수표 60,000원 차감은 은행오류이므로 은행측 조정에서 더한다.

사용할 공식

조정후 당좌예금 잔액 = 은행잔액 ± 은행측 조정항목 = 수정후 장부잔액
수정 전 장부잔액 = 조정후 잔액 - 장부수정의 순증가액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은행계정조정의 목적은 은행측 잔액과 장부측 잔액을 같은 조정후 잔액으로 맞추는 데 있으므로, 먼저 은행측에서 공통의 조정후 잔액을 구한 뒤 장부에 추가로 반영될 순효과를 거꾸로 제거하면 수정 전 장부잔액이 나온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은행측 조정후 잔액을 구한다.
은행오류로 잘못 차감된 60,000원은 더하고, 미제시수표 21,000원은 빼며, 12월 31일 입금했으나 은행이 다음 해 1월 2일 처리한 45,000원은 더한다.
따라서 조정후 잔액은 14,000 + 60,000 - 21,000 + 45,000 = 98,000원이다.
2. 장부수정의 순효과를 구한다.
받을어음 추심 20,000원은 장부에 아직 미기록이므로 더한다.
78,000원을 87,000원으로 잘못 기록한 현금입금은 장부를 9,000원 과대계상했으므로 9,000원 뺀다.
69,000원 수표를 66,000원으로 기록한 것은 지급을 3,000원 과소계상한 것이므로 3,000원 뺀다.
장부수정 순효과는 +20,000 - 9,000 - 3,000 = +8,000원이다.
3. 수정 전 장부잔액을 역산한다.
수정 전 장부잔액 + 8,000 = 98,000이므로 수정 전 장부잔액은 9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72,000원은 조정후 잔액 98,000원과 장부수정 순효과 8,000원을 연결하지 못한 값이다. 수정 전 장부잔액은 98,000 - 8,000 = 90,000원이어야 하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90,000원이다.
② X: 84,000원도 장부수정항목의 가감 방향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받을어음 추심 20,000원은 장부에 더해야 하고, 두 기록오류 9,000원과 3,000원은 장부에서 빼야 하므로 수정 전 장부잔액은 84,000원이 아니라 90,000원이다.
③ O: 은행측 조정후 잔액은 98,000원이고, 장부는 추가로 순증가 8,000원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수정 전 장부잔액은 98,000 - 8,000 = 90,000원이다.
④ X: 98,000원은 은행측과 장부측이 조정된 뒤 일치하는 수정후 잔액이지, 수정 전 장부상 잔액이 아니다. 수정 전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9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은행측 미조정항목과 장부수정항목을 한꺼번에 섞어 계산하는 데 있다. 특히 98,000원을 바로 장부잔액으로 착각하거나, 받을어음 추심 20,000원을 차감으로 처리하고 69,000원 수표의 3,000원 차이를 더하는 방향오류를 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은행계정조정 문제는 먼저 은행측에서 조정후 공통잔액을 만든 뒤, 장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순증가와 순감소를 따로 계산하여 수정 전 장부잔액을 역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미제시수표와 미입금현금은 은행측 조정이고, 추심통지와 기록오류는 장부측 조정이다. 조정후 잔액을 먼저 맞춘 뒤 장부수정 순효과를 역산하면 된다.

NoteBase

문 7.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X(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600,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3년 5월 1일 사용하던 기계장치 X를 기계장치 Y와 교환하였다. 교환시점에서의 기계장치 X와 기계장치 Y의 공정가치는 각각 ₩300,000과 ₩280,000이었으며, (주)서울은 현금 ₩20,000을 수령하고 기계장치 Y를 취득하였다. 교환거래에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각각에 대해 (주)서울이 인식할 기계장치 Y의 취득원가는?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280,000,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300,000

②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280,000,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320,000

③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320,000,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300,000

④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320,000,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32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유형자산 교환에서 상업적 실질 유무에 따라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볼지, 장부금액 기준으로 볼지를 구분하고 교환자산의 장부금액을 월할상각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계장치 X의 취득원가는 600,000원이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원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이므로 월 감가상각비는 $600,000 \div 60 = 10,000$원이다.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4월 30일까지 28개월 상각하므로 교환시점 장부금액은
$600,000 - 10,000 \times 28 = 320,000$원이다.
교환시점 공정가치는 X가 300,000원, Y가 280,000원이고 현금 20,000원을 수령한다.

사용할 공식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문제에서는 X의 공정가치 300,000원에서 수취 현금 20,000원을 차감한 280,000원이 Y의 취득원가가 되며, Y의 공정가치 280,000원과도 일치한다.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취득원가는 처분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X의 장부금액 320,000원에서 수취 현금 20,000원을 차감한 300,000원이 Y의 취득원가가 된다.

계산 과정

1. 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600,000 \div 60 = 10,000$원이다.
2. 교환 전까지의 누적감가상각비는 $10,000 \times 28 = 280,000$원이다.
3. 기계장치 X의 교환시점 장부금액은 $600,000 - 280,000 = 320,000$원이다.
4.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Y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기준이므로 $300,000 - 20,000 = 280,000$원이다.
5.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Y의 취득원가는 장부금액 기준이므로 $320,000 - 20,000 = 30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Y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 기준 280,000원이고,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X의 장부금액 320,000원에서 수취 현금 20,000원을 차감한 300,000원이다.
② X: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320,000원'이 틀렸다. 상업적 실질이 없더라도 수취한 현금 20,000원은 차감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300,000원이다.
③ X: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320,000원'이 틀렸다.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올바르게는 280,000원이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300,000원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려 오답이다.
④ X: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320,000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320,000원'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280,000원, 없는 경우 3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도 장부금액 320,000원을 그대로 쓰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반대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취 현금 20,000원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으면 320,000원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형자산 교환 문제는 먼저 교환자산의 장부금액을 감가상각까지 반영해 계산하고, 그다음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 기준, 없으면 장부금액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잡는다. 현금을 주고받으면 마지막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차감해 검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 실질이 없으면 장부금액이다. 수취 현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이자율 8%, 액면금액 ₩10,000,000인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였다. 액면이자는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하며, 발행금액은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 6%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현재가치 표는 <보기>와 같다. (주)서울이 사채발행차금을 매 회계기간 말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면, 20X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단, 사채발행비는 없으며,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한다.)

〈보기〉

기간 (n)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		
	6%	7%	8%	6%	7%	8%
1	0.9434	0.9346	0.9259	0.9434	0.9346	0.9259
2	0.8900	0.8734	0.8573	1.8334	1.8080	1.7833
3	0.8396	0.8163	0.7938	2.6730	2.6243	2.5771
4	0.7921	0.7629	0.7350	3.4651	3.3872	3.3121

① ₩10,000,000

② ₩10,188,452

③ ₩10,366,464

④ ₩10,534,4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채를 할증발행한 뒤 유효이자율법으로 첫해 말 장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10,000,000원이다.
표시이자율은 8%이므로 매년 현금지급이자는 800,000원이다.
시장수익률은 6%이므로 발행가액과 이자비용 계산에는 6%를 사용한다.
만기는 3년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발행가액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계이다.
발행가액 = 연이자 현재가치 + 원금 현재가치
발행가액 = 800,000 × 2.6730 + 10,000,000 × 0.8396 = 10,534,400
유효이자율법에서는 이자비용을 기초 장부금액에 시장이자율 6%를 곱해 구한다.
이자비용 = 10,534,400 × 0.06 = 632,064
첫해 말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에 이자비용을 더하고 현금지급이자를 차감해 구한다.
기말 장부금액 = 10,534,400 + 632,064 - 800,000 = 10,366,464

계산 과정

1. 표시이자율 8%를 액면금액 10,000,000원에 곱해 매년 현금지급이자 800,000원을 구한다.
2. 시장이자율 6%의 현재가치계수를 적용해 발행가액 10,534,400원을 구한다. 표시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으므로 할증발행이다.
3. 첫해 이자비용은 10,534,400원에 6%를 곱한 632,064원이다.
4.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800,000원 중 167,936원은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이므로 장부금액은 10,366,464원으로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10,000,000원은 액면금액이다. 이 문제는 20X1년 말 장부금액을 묻고 있으며, 할증발행된 사채는 첫해 말에도 장부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 틀린 표현은 '20X1년 말 장부금액을 액면금액과 같게 본 것'이다. 올바르게는 만기 직전까지 장부금액이 점차 10,000,000원으로 수렴한다.
② X: 10,188,452원은 유효이자율법으로 한 해를 더 상각한 뒤의 금액에 해당한다. 20X1년 말이 아니라 20X2년 말 장부금액으로 보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첫해 말 금액으로 본 것'이다. 올바르게는 첫해 말 장부금액은 10,366,464원이다.
③ O: 발행가액 10,534,400원에서 첫해 할증상각액 167,936원을 차감하면 10,366,464원이 된다. 유효이자율법의 첫해 말 장부금액과 일치하므로 옳다.
④ X: 10,534,400원은 사채 발행 시점의 최초 장부금액이다. 첫해 말에는 이자지급과 할증상각이 반영되어 장부금액이 줄어든다. 틀린 표현은 '발행시 장부금액을 연말 장부금액으로 본 것'이다. 올바르게는 발행 시점 장부금액이 10,534,400원이고 20X1년 말 장부금액은 10,366,464원이다.

오답 포인트

표시이자율 8%와 시장이자율 6%의 역할을 바꾸면 발행가액과 이자비용이 모두 틀어진다. 또 발행가액 10,534,400원을 그대로 연말 장부금액으로 보거나, 한 해 더 상각한 10,188,452원을 첫해 말 금액으로 착각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채 장부금액 문제는 먼저 표시이자율로 현금이자를 구하고, 시장이자율로 발행가액과 이자비용을 계산한 뒤, 기초 장부금액 + 이자비용 - 현금이자의 순서로 기말 장부금액을 확정한다.

암기 포인트

표시이자율은 현금이자, 시장이자율은 발행가액과 이자비용, 할증발행 사채의 장부금액은 기간이 지날수록 액면금액으로 내려간다.

NoteBase

문 9.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에 <보기>와 같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주)서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인식한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X2년 1월 1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면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0(액면이자율 연 2%, 액면이자 매년 말 지급, 만기일시상환조건)이고,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 20X1년 1월 1일 일반사채 시장수익률은 연 10%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한 조건인 액면금액 ₩100,000, 액면이자율 연 2% 일반사채의 발행가액은 ₩80,000이다.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은 사채액면금액의 100%이며, 행사가액은 ₩1,000, 발행되는 보통주의 주당 액면금액은 ₩100이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① 20X1년 말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은 ₩16,000이다.

② 20X2년 1월 1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주식발행초과금 ₩33,000이 증가한다.

③ 20X2년 말 신주인수권대가 잔액은 ₩20,000이다.

④ 20X2년 12월 31일 이자비용은 ₩6,020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구분하고, 유효이자법 상각과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대체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액은 100,000원이다.
- 동일 조건 일반사채의 발행가액은 80,000원이다.
- 따라서 발행 시 자본요소인 신주인수권대가는 20,000원이다.
- 액면이자 지급액은 매년 2,000원이고, 유효이자율은 10%이다.
- 20X2년 1월 1일에 전체 신주인수권의 30%가 행사된다.
- 행사비율은 액면금액의 100%, 행사가액은 1,000원, 주당 액면금액은 100원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발행 시 자본요소는 총 발행대가에서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신주인수권대가 = 100,000 - 80,000 = 20,000
20X1년 이자비용과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은 유효이자법으로 계산한다.
이자비용 = 80,000 × 10\% = 8,000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 8,000 - 2,000 = 6,000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 증가는 행사대금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에, 행사된 신주인수권대가를 더해 구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 = 행사대금 - 자본금 + 대체되는 신주인수권대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사채를 없애는 거래가 아니라 별도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발행 시 부채요소는 80,000원, 자본요소인 신주인수권대가는 20,000원이다.
2. 20X1년 말 이자비용은 8,000원이고 현금이자 2,000원을 지급하므로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은 6,000원이다. 따라서 20X1년 말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은 14,000원이고 사채 장부금액은 86,000원이다.
3. 20X2년 1월 1일 행사된 신주인수권은 전체의 30%이므로 대체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6,000원이다.
4. 행사대금은 100,000원 × 30% = 30,000원이다. 발행주식 수는 30,000원 ÷ 1,000원 = 30주이고 자본금은 30주 × 100원 = 3,000원이다.
5. 따라서 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은 30,000원 - 3,000원 + 6,000원 = 33,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0X1년 말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은 발행 시 20,000원에서 20X1년 상각액 6,000원을 차감한 14,0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16,000원"이다. 올바르게는 "20X1년 말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은 14,000원이다"이다.

② O
- 행사된 신주인수권대가는 20,000원 × 30% = 6,000원이다.
- 행사대금은 30,000원, 자본금은 3,000원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 증가는 30,000원 - 3,000원 + 6,000원 = 33,000원이다.
- 따라서 ②가 옳다.

③ X
- 행사 후 남는 신주인수권대가 잔액은 20,000원에서 행사된 6,000원을 차감한 14,0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20,000원"이다. 올바르게는 "20X2년 말 신주인수권대가 잔액은 14,000원이다"이다.

④ X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도 사채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자비용 계산 대상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
- 20X2년 이자비용은 20X1년 말 사채 장부금액 86,000원에 유효이자율 10%를 적용한 8,600원이다.
- 틀린 표현은 "이자비용은 6,020원이다"이다. 올바르게는 "20X2년 12월 31일 이자비용은 8,600원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사채처럼 생각하는 데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은 발행되지만 사채는 그대로 남으므로, ④처럼 부채가 70%만 남는다고 보면 이자비용 6,020원이 잘못 계산된다. 또한 ①처럼 연말 유효이자법 상각을 반영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조정 잔액을 잡아도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합금융상품 계산형은 먼저 동일조건 일반사채 가치를 부채요소로 잡고 잔액을 자본요소로 분리한다. 그다음 결산일에는 유효이자법으로 부채 장부금액을 갱신하고, 신주인수권 행사 시에는 사채 감소 여부를 따져 본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해도 사채가 남고, 전환사채만 전환 시 사채가 줄어든다.

암기 포인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해도 사채가 남고, 전환사채는 전환하면 사채가 줄어든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20X1년 (주)서울의 자기주식 거래 관련 자료이다. (주)서울의 20X1년 10월 26일 회계처리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은?

〈보기〉

날짜	거래 내용
1월 21일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에 취득하다.
2월 25일	자기주식 중 20주를 주당 ₩11,000에 처분하다.
7월 29일	자기주식 중 30주를 주당 ₩12,000에 처분하다.
10월 26일	자기주식 중 40주를 주당 ₩7,000에 처분하다.

① ₩40,000

② ₩60,000

③ ₩80,000

④ ₩12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전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으로 먼저 상계한 뒤 남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1월 21일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원가는 주당 10,000원이다.
2월 25일에 20주를 주당 11,000원에 처분하여 주당 1,000원, 총 20,0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
7월 29일에 3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여 주당 2,000원, 총 60,0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10월 26일 직전까지 누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80,000원이다.
10월 26일에는 4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처분차이 = 처분주식수 × 처분단가 - 취득원가
10월 26일 차손 = 40주 × 7,000원 - 10,000원 = -120,000원이다.
이 차손은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 80,000원으로 먼저 상계하고, 남는 40,000원이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항목 내부의 증감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2월 25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20주 × 11,000원 - 10,000원 = 20,000원이다.
2. 7월 29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30주 × 12,000원 - 10,000원 = 60,000원이다.
3. 누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20,000원 + 60,000원 = 80,000원이다.
4. 10월 26일 처분차손은 40주 × 7,000원 - 10,000원 = -120,000원이다.
5. 이 차손 120,000원 중 80,000원은 누적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상계되고, 남는 40,000원이 자기주식처분손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계산 결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40,000원이다. 10월 26일의 처분차손 120,000원에서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 80,000원을 먼저 차감하면 40,000원이 남는다.
② X: 60,000원은 정답이 아니다. 60,000원은 120,000원의 차손에서 2월 25일 처분이익 20,000원만 상계한 값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기존 처분이익을 일부만 반영하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2월과 7월의 처분이익 80,000원 전액을 먼저 상계해야 한다.
③ X: 80,000원은 정답이 아니다. 80,000원은 2월과 7월에 누적된 자기주식처분이익 금액이다. 틀린 표현은 누적 처분이익 자체를 10월 26일의 처분손실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누적 처분이익 80,000원은 차손 상계에 사용되고 남는 금액만 처분손실이 된다.
④ X: 120,000원은 정답이 아니다. 120,000원은 10월 26일 거래만 놓고 본 총 처분차손이다. 틀린 표현은 이전 처분이익 상계를 누락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총 차손 120,000원에서 누적 자기주식처분이익 80,000원을 차감한 40,000원이 자기주식처분손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10월 26일 거래만 따로 보고 120,000원을 바로 처분손실로 잡는 데 있다. 자기주식은 자본거래이므로 이전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을 먼저 상계한다는 순서를 놓치면 ②, ③, ④ 같은 오답에 걸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기주식 재처분 문제는 먼저 취득원가와 처분단가의 차이로 이번 거래의 차손익을 계산한 다음, 이전에 누적된 자기주식처분이익 잔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차손이 발생하면 그 잔액으로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남는 금액만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기주식 재처분 차손은 누적 자기주식처분이익부터 상계하고 남는 금액만 처분손실이 된다.

NoteBase

문 11. 실지재고조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서울은 20X1년 말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1개 창고의 재고를 실수로 누락하였고, 이로 인해 20X1년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었다. 20X2년 말 재고조사에서는 오류가 없었다면, 20X1년 오류가 (주)서울의 20X1년 및 20X2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X1년 매출원가 과대평가

② 20X1년 당기순이익 과소평가

③ 20X2년 기초재고자산 과소평가

④ 20X2년 이익잉여금 과대평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지재고조사법에서 기말재고 과소평가 오류가 당기와 다음 연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20X1년 말 재고조사에서 1개 창고 재고가 누락되어 20X1년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었다.
-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재고 오류가 당기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
- 20X2년 말 재고조사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20X1년 오류는 20X2년 기초재고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뒤집힌다.

핵심 개념

- 기말재고 과소평가 = 당기 말 재고를 적게 잡아 매출원가를 크게 만들고 당기순이익을 작게 만드는 오류이다.
- 적용 요건: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매출원가가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산되므로, 기말재고가 줄면 당기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 다음 연도에는 전기 기말재고 오류가 당기 기초재고 오류로 이어지므로, 20X2년에는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기말재고 과소평가가 20X1년에는 매출원가 과대평가와 당기순이익 과소평가를 만들고, 20X2년에는 기초재고 과소평가로 인해 매출원가 과소평가와 당기순이익 과대평가를 만든다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핵심은 당기 손익 효과와 누적 이익잉여금 효과를 구분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20X1년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면 매출원가 계산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작아지므로 20X1년 매출원가는 과대평가된다.

② O
20X1년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면 그만큼 20X1년 당기순이익은 과소평가된다.

③ O
20X1년 기말재고 과소평가는 그대로 20X2년 기초재고자산 과소평가로 이어진다. 전기 말 오류가 다음 연도 초 재고금액으로 이월되기 때문이다.

④ X
20X2년에는 기초재고 과소평가 때문에 매출원가가 과소평가되고 당기순이익이 과대평가되지만, 이는 20X1년의 당기순이익 과소평가를 반대로 뒤집는 효과이다. 따라서 20X2년 말 누적 이익잉여금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된다. 틀린 표현은 '20X2년 이익잉여금 과대평가'이고, 올바르게는 '20X2년 말 이익잉여금에는 누적 오류가 남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20X2년 당기순이익이 과대평가된다는 사실만 보고 이익잉여금도 과대평가된다고 연결하면 ④에 걸리게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연도별 손익 효과와 2개 연도 누적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 오류 문제는 먼저 전기 기말재고 오류가 당기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방향을 판단하고, 다음 해에는 그 금액이 기초재고로 이월되어 반대 방향 효과를 만든다고 본다. 그 뒤 누적 이익잉여금이 다음 해 말에도 남는지, 아니면 정상으로 환원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말재고 과소평가는 당기 매출원가 과대, 당기순이익 과소를 만들고 다음 해에는 반대로 뒤집혀 누적 이익잉여금 효과가 사라진다.

NoteBase

문 12. 현금흐름표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간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
ㄷ.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간의 예금이체 및 예금 인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ㄹ.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지 않으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금흐름표에서 직접법과 간접법의 정보유용성, 비현금 거래의 제외, 금융회사의 순액표시, 법인세 현금흐름의 공시와 분류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직접법은 주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총액으로 보여 주어 간접법으로는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에도 더 유용하다.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비현금항목과 운전자본 변동 등을 조정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이 없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 본문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공시한다.
금융회사의 일부 예금 관련 거래는 회전이 빠르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아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법인세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며,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으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이 틀리고 ㄴ은 옳다. ㄱ의 틀린 표현은 '간접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현금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직접법이 간접법으로는 바로 얻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에도 더 유용하다. ㄴ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거래를 현금흐름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② X: ㄱ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ㄱ은 직접법과 간접법의 정보유용성을 거꾸로 서술하였다. ㄹ의 틀린 표현은 '법인세로 인한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하지 않으며'이다. 실제로는 법인세 현금흐름을 별도로 공시하며,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③ O: ㄴ과 ㄷ이 모두 옳다. ㄴ은 비현금 투자활동·재무활동 거래는 현금흐름표 본문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정확히 설명한다. ㄷ도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간 예금이체 및 예금인출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예외를 설명하므로 옳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ㄷ은 금융회사 예금 관련 거래의 순액표시 가능성을 적절히 설명한 것이다. 반면 ㄹ은 법인세 현금흐름의 별도 공시를 부정한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법인세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한다.

오답 포인트

직접법과 간접법의 유용성 방향을 뒤집어 놓은 ㄱ과, 법인세 현금흐름의 '별도 공시' 여부를 부정한 ㄹ이 대표적인 함정이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세부 예외를 묻더라도 기본 원칙 문구 하나를 반대로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금흐름표 문항은 먼저 직접법이 더 유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비현금 거래는 본문 제외인지, 금융회사 특정 거래는 순액표시 가능한지, 법인세는 별도 공시 후 원칙상 영업활동인지의 순서로 판단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직접법은 더 유용하고, 비현금 거래는 본문에서 제외하며, 금융회사 일부 거래는 순액표시가 가능하고, 법인세는 별도 공시 후 원칙상 영업활동이다.

NoteBase

문 13.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서울의 20X1년 말 유동부채는 ₩500,000, 당좌비율은 30%, 유동비율은 50%이다. (주)서울의 20X1년 초 재고자산이 ₩250,000, 당기제품제조원가가 ₩120,000이며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단, 재고자산계정은 모두 제품계정으로 한정한다.)

① ₩100,000

② ₩150,000

③ ₩250,000

④ ₩27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로 기말제품재고를 구한 뒤 기초재고자산과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유동부채 500,000원, 당좌비율 30%, 유동비율 50%, 기초 재고자산 250,000원, 당기제품제조원가 12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이다.
주의할 조건: 재고자산계정은 모두 제품계정이므로 기초제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의 구조로 계산된다.

사용할 공식

당좌자산 = 유동부채 × 당좌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유동비율, 기말재고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이다.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제조업의 제품계정에서는 판매 가능한 제품원가가 기초재고와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으로 잡히고, 기말에 남아 있는 제품재고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당좌자산은 500,000원 × 30% = 150,000원이다.
2. 유동자산은 500,000원 × 50% = 250,000원이다.
3. 기말재고자산은 250,000원 - 150,000원 = 100,000원이다.
4. 매출원가는 25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27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00,000원은 계산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다. 틀린 표현은 이 금액을 매출원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기말재고자산 100,000원을 차감한 뒤 매출원가를 270,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② X. 150,000원은 유동부채 500,000원에 당좌비율 30%를 적용한 당좌자산 금액이다. 틀린 표현은 당좌자산을 매출원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당좌자산으로부터 기말재고를 역산한 후 매출원가를 구해야 한다.
③ X. 250,000원은 유동자산 금액이면서 동시에 문제에서 주어진 기초재고자산 금액이다. 틀린 표현은 기초재고자산 자체를 매출원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기초재고자산 250,000원에 당기제품제조원가 120,000원을 더하고 기말재고 10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④ O. 기말재고자산 100,000원을 구한 뒤 매출원가 = 250,000원 + 120,000원 - 100,000원으로 계산하면 270,000원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이 함께 제시되면 당좌자산과 유동자산을 각각 구한 뒤 그 차이로 재고자산을 찾아야 한다. ①은 기말재고자산, ②는 당좌자산, ③은 유동자산 또는 기초재고자산을 매출원가와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런 문제는 먼저 유동부채에 비율을 곱해 당좌자산과 유동자산을 구하고, 두 금액의 차이로 기말재고를 확인한 다음, 제조업 매출원가식인 기초제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를 적용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의 차이는 재고자산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4. ㈜서울은 20X1년에 설립되면서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20X2년 말 ㈜서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순확정급여부채는?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보기〉

20X1년	• 연초 할인율은 연 3% • 연간 근무원가는 ₩1,200 • 연말 사외적립자산에 ₩800 현금 적립
20X2년	• 연초 할인율은 연 10% • 6월 말 퇴직종업원에게 ₩200의 현금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 6월 말 사외적립자산에 ₩1,000 현금 적립 • 연간 근무원가는 ₩1,200

① ₩590

② ₩1,720

③ ₩2,310

④ ₩4,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기말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 순확정급여부채를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20X1년 연간 근무원가는 1,200원이다.
-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 적립액은 800원이다.
- 20X2년 연초 할인율은 연 10%이다.
- 20X2년 연간 근무원가는 1,200원이다.
- 20X2년 6월 말 퇴직종업원에게 200원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다.
- 20X2년 6월 말 사외적립자산에 1,000원을 추가 적립한다.

구해야 할 값:
- 20X2년 말 순확정급여부채이다.

주의할 조건:
- 6월 말 현금흐름은 하반기 6개월만 이자효과를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순확정급여부채=기말 확정급여채무-기말 사외적립자산
기말 확정급여채무=기초 확정급여채무+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급여지급액
기말 사외적립자산=기초 사외적립자산+이자수익-급여지급액+기여금+기중 기여금 수익
이 공식을 쓰는 이유:
- 재무상태표에는 확정급여채무 총액이 아니라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 이 문제는 20X2년 중간에 지급과 추가 적립이 있으므로 채무와 자산을 각각 롤포워드한 뒤 마지막에 상계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20X1년은 설립 첫해이므로 기초 잔액이 없다. 따라서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는 1,200원이고, 사외적립자산은 연말 적립액 800원이다.
2. 20X2년 말 확정급여채무는 $1,200 + 1,200 + 1,200 \times 0.1 - 200 = 2,320$원이다.
3. 20X2년 말 사외적립자산은 기초 800원에 연초 할인율 10%를 적용한 수익 80원을 더하고, 6월 말 지급 200원을 차감하고, 6월 말 추가 적립 1,000원과 그 하반기 수익 $1,000 \times 0.1 \times \frac{6}{12} = 50$원을 더해 $800 + 80 - 200 + 1,000 + 50 = 1,730$원이다.
4. 따라서 순확정급여부채는 $2,320 - 1,730 = 59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기말 확정급여채무 2,320원에서 기말 사외적립자산 1,730원을 차감하면 순확정급여부채는 590원이다.

② X
- 1,720원은 순확정급여부채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6월 말 추가 적립 1,000원에는 하반기 6개월치 수익 50원이 붙으므로 기말 사외적립자산은 1,730원이며, 순부채는 590원이다.
- 틀린 수치 1,720원 → 올바르게는 순확정급여부채는 590원이다.

③ X
- 2,310원은 기말 확정급여채무를 잘못 굴린 값에 가깝다. 6월 말 지급 200원은 실제 지급액 그대로 차감하는 항목이지, 연말가치로 다시 불려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다.
- 틀린 수치 2,310원 → 올바르게는 기말 확정급여채무는 2,320원이고 순확정급여부채는 590원이다.

④ X
- 4,000원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크게 잡은 오류이다.
재무상태표에는 순확정급여부채를 계상하므로 2,320원에서 1,730원을 차감해야 한다.
- 틀린 수치 4,000원 → 올바르게는 순확정급여부채는 59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한 번에 보지 않고 각각 따로 굴려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6월 말 추가 적립 1,000원은 1년치가 아니라 6개월치 수익 50원만 반영한다.
또한 6월 말 지급 200원은 채무와 자산에서 동시에 빠지는 항목이므로 연말가치로 다시 증액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확정급여 계산형은 먼저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기초값으로 잡는다.
그다음 당기 근무원가, 기초잔액의 이자, 기중 지급과 기중 적립을 각각 반영한다.
마지막에 기말 확정급여채무-기말 사외적립자산으로 순확정급여부채를 계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확정급여제도는 채무 롤포워드와 자산 롤포워드를 따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5.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되면 리스이용자는 이러한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②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해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해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 금액을 줄이는 경우 관련 차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④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각 금융리스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원가(원가와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리스변경의 회계처리, 리스이용자의 현금흐름표 분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개시일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별도 리스는 리스범위가 늘어나고 대가도 추가 사용권의 개별 가격에 비례하도록 조정될 때 기존 리스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변경이다.
별도 리스로 보지 않는 리스변경은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하는 변경이며, 범위 축소로 인한 종료 부분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의 현금흐름표에서는 리스부채 원금 상환액은 재무활동으로,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소액자산리스료·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는 개시일에 판매손익을 인식하고, 매출원가는 기초자산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고, 대가 증가분이 넓어진 리스범위의 개별 가격과 계약 상황을 반영한 조정액에 상응하면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선지는 별도 리스로 보는 두 요건을 정확히 적었다.

② X
틀린 부분은 "관련 차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서는 리스부채를 재측정한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리스범위를 좁혀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을 줄일 때 발생하는 종료 관련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O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 원금 상환액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또한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리스료, 소액자산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므로 선지는 옳다.

④ O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개시일에 판매손익을 인식한다. 이때 매출원가는 기초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와 장부금액이 다를 경우 장부금액에서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선지의 서술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리스부채 재측정과 사용권자산 감소라는 표현 때문에 자산재평가처럼 기타포괄손익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리스범위 축소로 인한 종료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스변경 선지는 먼저 별도 리스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별도 리스가 아니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범위 축소가 있으면 종료 부분 손익은 당기손익인지 확인한다. 현금흐름표는 리스부채 원금이면 재무활동,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리스료면 영업활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범위 확대와 독립가격 대가 증액은 별도 리스, 범위 축소 손익은 당기손익, 리스부채 원금은 재무활동이다.

NoteBase

문 16.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③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④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상계·측정 원칙, 특히 영업권 최초 인식 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예외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당기법인세자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나 소급공제로 회수할 세액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서 생기지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의 상계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해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권리이므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X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틀린 표현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영업권 최초 인식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이다.

③ O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지 않으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④ O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차이에 세율을 적용해 측정하되 할인은 금지된다.

오답 포인트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보이면 이연법인세부채를 무조건 인식한다고 외우면 ②에 걸린다. 영업권 최초 인식은 대표적인 인식 예외이므로 별도로 떼어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인세 선지는 먼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구분한 뒤, 각 문장이 인식·상계·할인 중 무엇을 묻는지 나누어 판단한다. 그다음 '영업권 최초 인식' 문구가 보이면 이연법인세부채 불인식 예외를 먼저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소급공제 결손금은 당기법인세자산, 영업권 최초 인식은 이연법인세부채 불인식, 이연법인세는 무할인이다.

NoteBase

문 17.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서울은 20X1년도 기초유통보통주식수와 보통주당기순이익(계속영업이익)이 각각 2,000주, ₩2,500,000이다. (주)서울의 전환우선주는 총 액면금액 ₩20,000,000(주당 액면금액 ₩10,000)이며, 20X1년 1월 1일부터 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의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20X1년 7월 1일 최초 전환청구된 우선주는 액면금액 ₩10,000,000이고, 20X1년분 전환우선주 배당금액은 ₩500,000일 때,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에서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① ₩250

② ₩270

③ ₩290

④ ₩3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제 전환분을 반영한 기본주당순이익과 if-converted method에 따른 희석주당순이익을 비교하여 감소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2,000주
- 보통주당기순이익 2,500,000원
- 전환우선주 총 2,000주(20,000,000원 ÷ 10,000원)
- 20X1년 7월 1일 전환청구분 1,000주(10,000,000원 ÷ 10,000원)
- 20X1년분 전환우선주 배당금 500,000원

구해야 할 값:
- 희석주당순이익이 기본주당순이익에서 감소한 금액

주의할 조건:
- 2,500,000원은 이미 보통주당기순이익이므로 우선주배당금을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이다.
희석주당순이익은 (보통주당기순이익 + 전환우선주 배당금) ÷ (기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희석 추가주식수)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전환우선주가 연초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면 우선주배당금은 사라지고 보통주 수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기본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2,000 + 1,000 \times \frac{6}{12} = 2,500$주이다.
2. 기본주당순이익은 $2,500,000 \div 2,500 = 1,000$원이다.
3. 희석 추가주식수는 미전환 우선주 $1,000 \times \frac{12}{12} = 1,000$주와 기중 전환분의 전환 전 기간분 $1,000 \times \frac{6}{12} = 500$주를 합한 1,500주이다.
4. 희석 분모는 $2,500 + 1,500 = 4,000$주이다.
5. 희석 분자는 $2,500,000 + 500,000 = 3,000,000$원이다.
6. 희석주당순이익은 $3,000,000 \div 4,000 = 750$원이다.
7. 감소액은 $1,000 - 750 = 25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감소액은 250원이다. 기본주당순이익 1,000원에서 희석주당순이익 750원을 차감하면 250원이므로 정답이다.

② X
270원은 2,500,000원을 총당기순이익으로 오해하여 우선주배당금 500,000원을 기본주당순이익 계산에서 한 번 더 차감할 때 접근하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감소액이 270원이다"이다. 올바르게는 2,500,000원은 이미 보통주당기순이익이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고 감소액은 250원이다.

③ X
290원은 실제 전환분의 가중평균주식수 반영이나 희석 추가주식수 계산을 어긋나게 잡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감소액이 290원이다"이다. 올바르게는 기본 분모 2,500주와 희석 분모 4,000주를 사용하여 감소액 250원을 구한다.

④ X
300원은 7월 1일 전환분의 6개월 가중치를 무시하거나 연초 전환과 기중 전환을 구분하지 않을 때 나오는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감소액이 300원이다"이다. 올바르게는 기중 전환분 1,000주에는 $\frac{6}{12}$ 가중치를 적용하므로 감소액은 250원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2,500,000원을 총당기순이익으로 착각하여 우선주배당금을 한 번 더 빼는 오류이다. 또 실제 전환분은 기본주당순이익 분모에 6개월 가중치로 반영하고, 희석주당순이익에서는 전환 전 기간만큼만 추가주식수로 반영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증권 희석 문제는 먼저 분자가 총당기순이익인지 보통주귀속이익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실제 전환분이 기본 분모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계산한 뒤, 희석 단계에서 전환 전 기간 주식수와 되돌릴 배당금을 추가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통주당기순이익이 이미 주어지면 우선주배당금을 다시 빼지 않고, 희석 계산에서는 배당금을 더하고 전환 전 기간 주식수를 더한다.

NoteBase

문 18. (주)서울의 20X1년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9,000,000이고, 단위당 공헌이익률은 80%이다. 총비용 중 변동비와 고정비의 비율은 1 : 1.5이다. (주)서울의 20X1년 총비용이 매출의 50%를 차지할 때 순이익은?

① ₩6,000,000

② ₩8,000,000

③ ₩10,000,000

④ ₩12,0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공헌이익률로 고정비를 구한 뒤, 총비용이 매출의 50%일 때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CVP 계산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손익분기점 매출액 9,000,000원, 공헌이익률 80%, 변동비:고정비 = 1:1.5
구해야 할 값: 총비용이 매출의 50%일 때의 순이익
주의할 조건: 공헌이익률이 80%이면 변동비율은 20%이다.

사용할 공식

$BES = \frac{F}{CMR}$
$9{,}000{,}000 = \frac{F}{0.8} \Rightarrow F = 7{,}200{,}000$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회수하는 매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손익분기점 매출액 9,000,000원과 공헌이익률 80%로 고정비를 구하면 7,200,000원이다.
2. 변동비:고정비 = 1:1.5이므로 변동비는 4,800,000원이고 총비용은 12,000,000원이다.
3. 총비용이 매출의 50%이므로 매출액은 24,000,000원이다.
$Sales = \frac{12{,}000{,}000}{0.5} = 24{,}000{,}000$
4.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12,000,000원이다.
$Profit = 24{,}000{,}000 - 12{,}000{,}000 = 12{,}000{,}000$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산 결과 순이익은 12,00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순이익이 6,000,000원'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순이익은 12,000,000원'이다. 6,000,000원은 총비용률 50%와 고정비 구조를 끝까지 연결하지 못한 오답이다.
② X: 계산 결과 순이익은 12,00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순이익이 8,000,000원'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순이익은 12,000,000원'이다. 8,000,000원은 손익분기점 자료로 구한 고정비와 실제 총비용 비율을 일치시키지 못한 값이다.
③ X: 계산 결과 순이익은 12,000,000원이다. 틀린 표현은 '순이익이 10,000,000원'이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순이익은 12,000,000원'이다. 10,000,000원은 총비용 12,000,000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역산하는 과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값이다.
④ O: 총비용 12,000,000원이 매출의 50%이므로 매출액은 24,000,000원이고, 순이익은 12,000,000원이다. 선택지의 '12,000,000원'이 계산 결과와 일치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손익분기점 매출액에서 바로 순이익을 구하려 하거나, 공헌이익률 80%를 변동비율 80%로 오독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이 문항은 먼저 고정비를 확정한 뒤 총비용 비율 50%를 매출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VP 계산 문제는 손익분기점 자료로 고정비를 먼저 구하고, 공헌이익률과 총비용률을 구분한 뒤, 마지막에 매출액과 순이익을 역산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공헌이익률 = 고정비이고, 순이익률은 1 - 총비용률이다.

NoteBase

문 19. 단일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주)서울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100%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원가자료가 <보기>와 같다면,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각각의 경우에 계산된 기말재공품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기〉

구분	수량	직접재료원가	가공원가
기초재공품(완성도: 50%)	200개	₩16,000	₩14,000
당기착수	800개	₩64,000	₩42,000
기말재공품(완성도: 50%)	400개		

① 가중평균법: ₩44,000, 선입선출법: ₩44,000

② 가중평균법: ₩46,000, 선입선출법: ₩44,000

③ 가중평균법: ₩46,000, 선입선출법: ₩46,000

④ 가중평균법: ₩48,000, 선입선출법: ₩46,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합원가계산에서 원재료가 공정초기에 100% 투입되는 조건하에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공품원가를 각각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기초재공품 200개, 완성도 50%, 직접재료원가 16,000원, 가공원가 14,000원 / 당기착수 800개, 직접재료원가 64,000원, 가공원가 42,000원 / 기말재공품 400개, 완성도 50%
구해야 할 값: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공품원가
주의할 조건: 원재료는 공정초기에 100% 투입되므로 기말재공품의 재료 완성도는 100%이고, 가공원가는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하므로 기말재공품의 가공 완성도 50%를 반영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법 기말재공품원가 = 기말재공품 직접재료 상당량 × 재료 단위원가 + 기말재공품 가공 상당량 × 가공 단위원가
선입선출법 기말재공품원가 = 당기 발생 직접재료 단위원가 × 기말재공품 직접재료 상당량 + 당기 발생 가공 단위원가 × 기말재공품 가공 상당량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기말재공품원가는 미완성 수량을 상당생산량으로 환산한 뒤 단위원가를 곱해 계산하며, 가중평균법은 기초원가와 당기원가를 합산하고 선입선출법은 당기 발생원가만으로 상당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완성품 수량은 200개 + 800개 - 400개 = 600개이다.
2. 가중평균법의 상당생산량은 직접재료 1,000개(600 + 400), 가공 800개(600 + 400 × 50%)이다.
3. 가중평균법 단위원가는 직접재료 80원(80,000 ÷ 1,000), 가공 70원(56,000 ÷ 800)이다.
4. 따라서 가중평균법 기말재공품원가는 32,000원(400 × 80) + 14,000원(200 × 70) = 46,000원이다.
5. 선입선출법에서 당기 완성품 중 기초재공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상당생산량은 직접재료 0개, 가공 100개(200 × 50%)이다.
6. 당기 착수분 중 완성품은 400개(600 - 200)이고, 기말재공품 상당생산량은 직접재료 400개, 가공 200개이다.
7. 선입선출법의 당기 상당생산량은 직접재료 800개(0 + 400 + 400), 가공 700개(100 + 400 + 200)이다.
8. 선입선출법 단위원가는 직접재료 80원(64,000 ÷ 800), 가공 60원(42,000 ÷ 700)이다.
9. 따라서 선입선출법 기말재공품원가는 32,000원(400 × 80) + 12,000원(200 × 60) = 44,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중평균법은 46,000원, 선입선출법은 44,000원이므로 앞값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가중평균법 44,000원이고, 올바르게는 가중평균법 46,000원이다.

② O
가중평균법 46,000원, 선입선출법 44,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제시된 두 금액이 모두 맞다.

③ X
선입선출법 값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선입선출법 46,000원이고, 올바르게는 선입선출법 44,000원이다. 46,000원은 선입선출법에서도 가중평균법처럼 기초 가공원가를 섞어 계산할 때 나오는 오답이다.

④ X
가중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모두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가중평균법 48,000원, 선입선출법 46,000원이고, 올바르게는 각각 46,000원과 44,000원이다. 48,000원은 기말재공품 가공원가 상당량을 200개가 아니라 400개로 잘못 본 경우에 가까운 오답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원재료와 가공원가의 완성도 적용이 다르다는 점과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의 단위원가 범위를 혼동하는 점이다. 원재료는 공정초기 100% 투입이므로 기말재공품 400개 전체가 재료 상당량에 들어가고, 가공원가는 50%만 반영된다. 또한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전기 원가를 기말재공품 단위원가 계산에 섞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합원가 계산형 문제는 먼저 완성품 수량을 구하고, 다음으로 재료와 가공의 상당생산량을 분리한 뒤, 마지막에 가중평균법은 총원가 기준, 선입선출법은 당기발생원가 기준으로 단위원가를 구해 기말재공품에 곱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재료 초입 100%면 기말재공품 재료 상당량은 수량 전체이고, 선입선출법 단위원가는 당기발생원가만 사용한다.

NoteBase

문 2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재정운영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③ 현금흐름표의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④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 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 증가를 말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의 정의와 분류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이다.

핵심 구분

순자산의 금액 정의와 순자산의 분류를 구분해야 한다. 순자산 자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지만, 재정상태표에서의 순자산 분류는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이다. 따라서 ①처럼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틀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본 부분은 맞지만, 그 분류를 잘못 적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구분한다.
틀린 표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올바른 표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
2번: O
재정운영표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현금의 수수 시점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표시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3번: O
현금흐름표의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가운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뜻한다. 경상활동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한 선지이다.
4번: O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 증가사항에는 회계 간 재산 이관, 물품 소관 전환, 양여·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 증가가 포함된다. 순자산의 증가 원인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오답 포인트

1번은 앞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맞는 설명이라서 뒤의 분류 오류를 지나치기 쉽다. 순자산의 정의와 순자산의 분류 체계를 한 선지에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무제표 관련 선지는 먼저 어떤 재무제표를 말하는지 확인한 뒤, 그 재무제표의 정의, 분류, 증감 항목을 따로 대조한다. 한 선지에 금액의 정의와 구성의 분류가 함께 나오면 둘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순자산은 자산-부채이고, 재정상태표 분류는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이다.

NoteBase